

190여 개국 동시 공개 '정유미표 명랑판타지'

(9월 25일 넷플릭스 통해 첫 전파)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
원작 작가가 입체적 캐릭터 완성
이번에도 여성감독과 호흡 맞춰
세계를 무대로 인지도 쌓을 찬스

배우 정유미가 '82년생 김지영'을 잊는 새 이름 '보건교사 안은영'을 얻었다. 소설이 창조한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이어가면서 원작이 확보한 독자를 넘어 영화와 드라마로 재탄생하는 이야기를 통해 더 폭넓은 대중 결으로 한걸음 다가간다.

정유미가 주연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을 9월25일 오후 4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영화 '82년생 김지영' 이후 1년 만이다. 조남주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가 원작인 영화로 호평을 얻은 것은 물론, 367만 관객 동원까지 일군 정유미는 새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홍행 공식'을 이어간다.

'보건교사 안은영' 역시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이다. 주변의 시선을 피해 사람들을 돕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보건교사 안은영이 새로 부임한 고등학교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원작의 정세랑 작가가 직접 드라마 대본을 맡아 정유미가 연기



정유미 주연의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의 한 장면.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영동하고 발랄한 매력을 과시한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한 안은영 캐릭터에 입체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명랑 판타지'를 완성했다.

두 편에서 연이어 타이틀 톨을 맡아 이야기를 이끄는 것도 공통점이다. 결혼

과 육아, 경력단절 및 재취업 등으로 고민하는 30대 여성 '김지영'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는 인물들의 현실적 문제를 풀어내 주목받은 정유미는 새롭게 만난 '안은영'을 통해서도 어디로 뛸지 모르면서도 특유의 발랄하고 영동한 매력을 발산한다.

정유미는 "'82년생 김지영'을 마치자마자 '보건교사 안은영'을 촬영하는 바람에 다소 헛갈리기도 했다"며 "두 소설 출판사(민음사)가 같아 그 출판사의 '딸'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두 작품을 통해 정유미는 여성감독과 호흡을 이어간다. '82년생 김지영'에서는 배우 출신 김도영 감독과 작업해 시너지를 냈다면, 이번에는 '미쓰 홍당무'와 '비밀은 없다'로 독창적인 여성 캐릭터를 구축한 이정미 감독과 손잡았다. 이 감독은 정유미와 상대역인 남주혁의 호흡을 두고 "능숙하지 않은 두 사람이 극중 빠져대면서 생기는 긴장감"을 관람 포인트로 꼽았다.

'보건교사 안은영'이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개국에서 동시 공개되는 만큼 정유미가 배우로서 해외 인지도를 쌓을 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영화 '부산행'과 예능프로그램 '윤식당' 시리즈를 통해 해외 팬덤을 쌓았지만, 주연 드라마로 공략하기는 처음이다.

이해리 기자 gol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정우성·이정재 청담동 330억 건물 공동 매입



정우성

이정재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300억 원대 건물을 공동 매입했다. 이들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26일

"회사에서 영화와 드라마 제작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며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입가는 330억원으로 알려졌다. 각 50%의 지분으로 나눠 매입한 이들은 1998년 영화 '태양은 없다'로 인연을 맺은 뒤 우정을 쌓아왔다. 최근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인 영화 '헌트'에 정우성이 출연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가수 손담비-연기자 성훈 열애설 부인

가수 손담비와 연기자 성훈이 '열애설'에 휩싸이자 이를 적극 부인했다. 손담비는 25일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소문에 부인의 선을 그었고, 성훈의 소속사 역시 26일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MBC '나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해 가벼운 스킨십 등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시선을 모았다. 두 사람은 26일 서로에 대해 "좋은 친구 사이이다"고 강조했다.

류덕환, 7년 사건 연인과 결혼 내년 연기



류덕환

배우 류덕환(33)이 7년동안 교제한 연인과 결혼한다. 류덕환은 26일 팬카페를 통해 "10월로 예식을 정하고 준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해져 내년으로 식을 미뤘다"고 밝혔다. 류덕환은 또 "짧지 않은 기간동안 평생 함께 하고 싶은 확신을 갖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아역 연기자로 데뷔한 류덕환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천하장사 마돈나' '퀴즈왕' 등 주연으로 활동했고 OCN 드라마 '신의 퀴즈' 시리즈로 실력을 증명했다. 최근 SBS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로 활약을 이었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기생충·사랑의 불시착이 끌고...방탄소년단·트와이스가 밀고

日 매체가 진단한 '한류의 열기'

'영화 '기생충'이 이끌고 '사랑의 불시착'이 안착시킨 뒤 그룹 방탄소년단과 걸그룹 트와이스가 넓혔다.'

이 문장의 목적어는 한류 혹은 한류의 팬덤이다. 일본 유력언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의 온라인 매체 '닛케이 크로스 트렌드'가 최근 현지 한류 열기를 이처럼 종합적으로 분석해 눈길을 모은다.

매체에 따르면 올해 아카데미상 4관왕의 '기생충'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끌어올렸다. 실제로 '기생충'은 일본 역대 개봉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뒤이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

넷플릭스를 통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현지 공개됐다. 북한을 배경으로 북한군 장교와 남한 재벌가 여자의 이야기로 현지 인기를 모았다. 이를 비롯해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한국 드라마가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 등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닛케이 크로스 트렌드'는 넷플릭스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생충' 같은 영화가 성공해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썼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는 '밀레니엄 세대'가 선호하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팬층을 넓혔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넓어진 한류 팬덤은 기존 드라마 '겨울연가'와 '연사마'(배용준) 등이 이끈

중장년 여성에서 10대부터 20대까지로 확대됐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걸그룹 트와이스가 이를 선두에서 이끈 또 다른 스타로 꼽힌다. 이들은 빌보드 차트 정상, 팝음악의 본거지인 미국과 유럽 아티스트들과 협업 등을 통해 일본으로도 영역을 넓히며 팬위를 떨치고 있다. 또 한류가 기성세대와 젊은 층이 모두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확고히 자리 잡는 데 힘을 발휘했다.

'닛케이 크로스 트렌드'는 이 같은 한류 콘텐츠가 "독창성과 보편적 주제, 정확한 타깃 공략"으로 일본시장에 안착했다면서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와이스

'자본공유앱'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찰밥통 관료들야!
씩씩 때로 씹어 줌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야
이생망, 헬조선, 흙수저, 자살송을 퍼뜨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글로벌 최고품,
최저가 평생 무상중여, 투자 전혀 없이 단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가 되는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프로젝트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 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 기부 경제학
☐ '자본공유앱 APP'
☐ 선착순 자동 릴레이 기부 품앗이계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극!!!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백인주 010-6462-6712/역삼/정비 010-5647-5428/김석우 청곡장 010-7653-5373/이수자 010-9339-8649/신비전 010-9220-4334/김광수 010-3207-8291/김영배 010-8230-8801/강영석 010-3274-5289
 강신호 010-2209-1142/이순지 010-9725-2789/최복진 010-5661-4167 ● 부산/김광주 010-9852-6452/백남서 010-7339-1000/민영숙 010-5118-5263/김만성 010-3315-1517/심정배 010-5644-2788
 양영기 010-4424-7161/우영환 010-4741-7038/조현교 010-7374-4111/서재웅 010-8770-2935 ● 대전/김관구 010-8029-0069/송해성 010-7712-2202/임동현 010-3742-5998/신달민 010-2391-8259
 ● 대구/정영희 010-4846-4950/이주환 010-4489-9789/9월현 010-5617-3123/김신우 010-6543-3126 ● 울산/지영희 010-8003-5323/정재수 010-4830-1810 ● 창원/최영하 010-8231-0776
 김인태 010-7586-7985/이정배 010-3572-4616 ● 전라/김재현 010-6258-3510/오명숙 010-8804-3404 ● 인천/박문표 010-3227-0993/주안/홍원표 010-6717-1779/서동원 010-3489-4190
 김도중 010-8488-2295 ● 김포/정재호 010-6416-1886 ● 여천/하현석 010-4707-2659/한선희 010-5177-9470 ● 제주/장근영 010-8513-3833 ● 울산/김기영 010-6285-7653
 ● 수원/왕인드레아 010-3435-0158/박우영 010-5221-8119/광배드로 010-7610-9936 ● 평강/고영철 010-5463-6952 ● 동강/송동욱 010-4280-4616/남미옥 010-6852-8897 ● 하와이/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 (주)
Hiubuntu 1644-6733